



[산업] 삼성 '유재성' LG '찰리 푸스' 셀럽 마케팅으로 소통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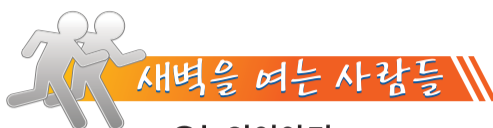
Life

[라이프] 브랜드 만들고 개성 ↑ 영골퍼 위한 신세계 패션 제안



홍보 아쉬움이 창업 아이디어로...

“동네 소식부터 관광지 정보까지 전달합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오늘의이야기

김 남 준 대표

사업의 출발은 사소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대학교 재학 중 지역의 한 문화기획사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공을 들인 만큼 참여한 공연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 그러나 지하철·버스 등 곳곳에 옥외광고판이 활성화된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결국 할 수 있는 홍보라고는 현수막을 내걸고, 버스 정류장을 돌아다니며 홍보 포스터를 붙이는 게 고작이었다. 행사는 무사히 끝이 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 사실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아쉬움으로만 남겨두지 않았다. 해결책을 찾으려 고민했고, 결국 창업으로 이어졌다. 2018년 당시 수도권에서 막 도입이 시작된 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옥외광고)를 활용해 지역의 소식을 담아 보기로 했다. '오늘의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디지털 매체로 동네 소식 전달

오늘의이야기는 지역 곳곳에 디지털 스크린 등의 매체를 설치해 지역 내 콘텐츠를 전달하는 O2O 광고 플랫폼이다. 현재까지 서울 강동구, 경기 시흥시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200여대의 디지털 매체를 운영하며 로컬 중심의 광고 플랫폼을 구축했다.

오늘의이야기는 '동네에서 새롭게 개업한 소상공인들의 고민', '홍보가 부족해 호응을 얻지 못한 지역 축제와 공연' 등 홍보가 필요한 로컬 콘텐츠를 주목했다.

김남준 대표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 행사 공연 등 홍보가 필요한 콘텐츠가 많지만, 진단지나 현수막에 귀결되는 게 대부분이다"라며 "적절한 홍보만 있었다면 관객이 몰릴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임에도 홍보가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원거리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노출돼, 지역 내에서는 광고 효과가 적을 수 있다"며 "체대로 활용하는 이들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버스나 지하철에 광고를 진행하려고 해도 최소 한 달 이상으로 장기 광고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결국 남은 선택지는 진단지 배포뿐인데 이마저도 대부분 불법적인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역내 오늘의이야기 디지털 매체가 설치된 모습.



/오늘의이야기

제한적인 홍보 방법에 창업 결심 디지털 매체 활용해 지역 광고 담아 전국 4개 지역서 200여개 매체 운영

동네서 관광지로 사업영역 넓혀 맛집·체험 등 관광 맞춤형 콘텐츠 선배

관가지로의 확장에 나서면서부터는 외부 기관의 관심이 커져 투자 유치 등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 6월에는 임팩트투자사 소풍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앞서 시흥, 대전 등 지역에서 운영해온 지역 맞춤형 콘텐츠 유통 경험, 국내 관광 산업의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속초에 생태계를 구축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달 우리금융지주의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디노랩' 2기에 선발됐다.

김 대표는 "아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금융회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 대표는 "아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금융회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동네에서 관광지로...

'동네의 이야기'를 주목해온 오늘의이야기가 다음으로 주목한 곳은 '관광지'다. 동네 속 콘텐츠보다 파급력 있고,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곳이 관광지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현재는 강원도 속초를 중심으로 관광지 내 디지털 매체를 설치하고 있다"며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과 택시 등 이동수단에 매체를 설치해 관광객 맞춤형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동수단에 설치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 주요 관광지 등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관가지로의 확장에 나서면서부터는 외부 기관의 관심이 커져 투자 유치 등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 6월에는 임팩트투자사 소풍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앞서 시흥, 대전 등 지역에서 운영해온 지역 맞춤형 콘텐츠 유통 경험, 국내 관광 산업의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속초에 생태계를 구축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달 우리금융지주의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디노랩' 2기에 선발됐다.

김 대표는 "아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금융회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4년차 스타트업 선배가 후배들에게

올해로 스타트업 4년차에 접어든 그는 창업을 고민하는 다른 예비창업자들에게 신중한 고민 후에 창업에 도전해볼 것을 조언했다.

김 대표는 "학생 때부터 창업을 하다보니, 주변에서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도 더러 있었다"며 "그러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시작한 사람들은 힘든 순간이 찾아오자마자 대부분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창업에 대한 도전에 뛰어들기 앞서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사회에 있는 하나의 문제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랬는데도 관련한 기업이 하나도 없거나, 내가 내세운 해결책으로 밖에 해결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때는 창업을 실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오늘의 속초



해가 채워진 해산물로 요리해요. 신선함의 대명사 비랑꽃 해파리를 속초의 바다를 그대로 담았어요. 너무 신선해서 가끔은 아직 갈아 있는 것 같고, 물론 진짜 갈아 있을 때도 있어요. 이걸 속삭이 나르기 전 셀프 케릭터라니 놀라게 아세요!

비랑꽃해파리를 속초로정 2번 속초시노원동 3000-331 1차

속초 이야기

속초시립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은 전통의 정취와 현대의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고자 합니다.

속초대신 전해주세요



속초시 평창로 자전거도로의 차선도색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평창로 자전거도로는 날씨, 노후화가 진행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차선도색공사를 실시해 도로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되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속초에서 뚜딤뚜딤



속초 여행 왔는데 남자가 정말까?라면 귀족 카드 지급 전에미 롤러스 어때요? 귀족이 갖고 있는 비싼 방법과 일라 허용어 허용어 수있 제단 풍물위 알려드리고 싶어서 너무 겁있 아세요!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카드지급, 남다른 애정이 생겼어요! 속초 속속공방 2번 속초시노원동 367-9

▲강원도 속초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있는 콘텐츠. ▶김남준 오늘의이야기 대표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보아 친오빠' 권순욱 뮤직비디오 감독, 암 투병 끝 사망...향년 39세 ▲ 페럴림픽 韓선수단, 종합순위 41위... 금 2·은 10·동 12 /사진 뉴시스

▲ 김광현, 1%이닝 4실점 난조 끝에 조기강판...시즌 7패 ▲ 서재현, 클라이밍 월드컵 대회 2위... 시즌 첫 메달 획득



▲ 손흥민 "이라크 침대축구, 생각 변함 없다" /사진 뉴시스 ▲ 조코비치, US오픈 16강행...캘린더 그랜드슬램 가능성 ↑